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더불어서 살아가다보면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며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하고(Strano & Petrocelli, 2005) 우울이나 불안에 빠지게도 하지만(Gilbert, Broomhead, Irons, McEwan, Bellew, Mills, Gale, & Knibb, 2007) 때로는 사람들을 발전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Adler, 1964).

열등감은 Adler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Adler(1964)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 전제하고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여 완전히 실현하려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각할 때 스스로 삶의 결함을 발견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열등감이란 신체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상태나 조건, 이를테면 타인과의 용모, 사회·경제적 지위, 성격, 능력 등의 비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약하거나 또는 낮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설영환, 1987).

Dixon과 Strano(1989)는 Adler이론을 바탕으로 열등감의 세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초기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둘째, 형제·자매와 같이 주요한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며 셋째, 신체, 사회성, 목표, 기준과 관련된 비교에서 형성된다. Gilbert 등(2007)은 열등감이란 또래 및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Adler(1964)는 열등감 관련 변인으로 기관 열등감, 부모의 양

육태도, 가족구도 및 출생순위, 심리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이 있음을 주장했다. 기관 열등감 즉 성장이 억제되거나 전체 혹은 부분이 변형된 신체 부분에 대해 갖는 태도, 과잉보호나 양육태만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가족 내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나약함,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느끼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 등이 열등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열등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열등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열등감은 불안을 야기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 성취를 낮게 만들고 성취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김계현, 2000). 또한 청소년 자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열등감이 자살의 주요한 위험요소임이 밝혀졌다(모상진, 2004). Strano와 Petrocelli(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열등감이 높은 집단이 중간정도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Adler는 열등감이 파괴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기 성취에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을 더 완전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무한한 원동력과 밑거름이 될 수 있으나 이 열등감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해결하려 한다면 개인을 파멸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모상진, 2004). Adler(1964)는 열등성과 열등감의 차이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열등감이란 주관적인 해석이고,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존하며, 결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열등성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역설했다. Adler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열등감

은 우월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때, 즉 자신의 열등감이 학습과정의 자극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비현실적이 되고 심리적 병리영역에 속하는 발달장애, 열등성, 즉 열등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Rattner, 1963).

Adler는 열등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 즉 반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만약 반응이 긍정적이면 결과 자체가 바람직한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반응이 무기력하다면 열등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부적응과 정신적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공역, 2001). 열등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열등감을 내적으로는 인식하지만 유용한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Adler, 1927). 이러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향상, 성취, 보상을 추구한다(홍현숙 역, 1995) 그러나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소심함, 내향성, 불신 등의 특성이 발견된다(Adler, 1927). 또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졌을 때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증후를 나타내게 되는데 Adler는 이를 공격성과 후퇴로 구분하였다. 공격적 성향은 자만, 허풍, 호언장담, 거만, 과장된 자기자랑, 폭력, 범죄, 자학, 자살 등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나며, 후퇴에 수반되는 행위 들로는 방어, 두려움, 의심, 폐쇄, 소심, 낙담,

주저, 은거 등이 있다(Adler, 1974; 정수희, 2002에서 재인용).

Terman과 Oden(1959)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열등감으로부터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발견했다. Mehrabian(2000) 또한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성공 경향성과 정적 상관관이 높음을 발견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여 그 열등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삶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열등감 관련 척도로는 임기홍(2000)이 개발한 열등감 증후 척도가 있다. 열등감 증후란 열등감이 있을 때 표출되는 증상으로 민감성 차원, 소극성 차원, 후퇴성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웅만(1995)이 개발한 열등감 검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 가정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국외에서는 Strano와 Dixon(1990)이 Adler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상대적 열등감 지수(Comparative Feeling of Inferiority Index: CFII)가 있다. 어렸을 때 지각하는 가족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을 어린 시절 형제(자매/남매) 및 현재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특징, 사회성, 목표에 대한 비교에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열등감 반응을 열등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열등감을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의 한 부분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열등감에 대한 연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

다(정수희, 2002). 실제로 열등감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이 상처 받았을 때 자아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반응 및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현재 상태 지각을 나타내고(정원식, 1970),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Rosenberg, 1965). 이와 같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열등감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등감 및 열등감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에 대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등감을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연구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인 열등감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으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즉, 열등콤플렉스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열등감을 보고하고(김형수, 김홍규, 2006)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열등감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고 긍정적·부

정적인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Adler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열등감 반응 요인을 찾아 문항을 구성하고 열등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된 검사도구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빨리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대상

열등감 반응 척도에 대한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광주시 소재 4년제 대학생 75명(남 43명(57%), 여 32명(43%))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균연령은 21.27세($SD = 2.71$)이다. 수집된 자료를 상담 심리 전공 대학원생 3명과 함께 분류·검토하였다.

열등감 반응 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 소재 4년제 대학생 334명(남자 209명(62.6%), 여자 125명(37.4%)), 평균연령은 21.73세($SD = 2.34$), 확인적 요인분석 및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충청 소재 4년제 대학생 235명(남자 122명(51.9%), 여자 113명(48.1%)), 평균연령은 21.02세($SD = 1.37$)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 소재 4년제 대학생 283명(남자 114명(40.3%), 여자 169명(59.7%)), 평균연령은 22.04세($SD = 1.92$), 공준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 소재 4년제 대학생 301명(남자 171명(56.8%), 여자 130명(43.2%)), 평균연령, 20.95세($SD =$

2.14),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인 대학생 26명(남자 12명(46.2%), 여자 14명(53.8%)), 평균연령, 22.15세($SD = 1.86$), 우울점수가 10점 미만인 대학생 29명(남자 15명(51.7%), 여자 14명(48.3%))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균연령, 21.84세($SD = 2.32$)이다.

도구

개발된 열등감 반응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로 개인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열등감 및 열등감 반응을 정의한 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표현한 874개의 문항 중 긍정적 반응 347문항, 부정적 반응 527문항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들 및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들과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후 94개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후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과 36문항을 최종 선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 각각 10, 8, 10, 8문항, 36문항을 선별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열등감 검사

김응만(1995)이 개발한 척도로 신체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 가정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학업열등감의 문항을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특정교과(영어, 수학, 회화 등)를 잘 하는 학생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를 '나는 전공이나 외국어를 잘 하는 학생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로 '나는 과학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를 '나는 일류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가 .903, 신체적 열등감, .782, 학업적 열등감, .857, 가정적 열등감, .840, 사회적 열등감 .901으로 나타났다. 김응만(1995)의 신뢰도는 .750에서 .874를 나타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등감 검사의 신뢰도와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

Baker와 St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김은정(1992)이 번안하였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24문항, 사회적 적응 20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5문항, 일반적 적응 15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문항은 어느 하위척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몇몇 문항들은 2개의 하위척도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9점 척도로,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 사이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채점은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각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응답들을 합하여 하위척도의 총점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가 .911, 학업적 적응 .845, 사회적 적응 .877, 개인-정서적 적응 .832, 일반적 적응 .826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의 우울척도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각각 4개의 기술문으로 구성되어 우울증상의 강도를 반영한다. 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 나타나며 10점 이하는 우울 증상 없음, 16점 이상을 우울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신민섭, 김중술, 박광배, 1993).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3으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는 열등감 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문항 수집을 위한 단계로 개인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열등감에 관한 문헌을 조사·연구하여 열등감 및 열등감 반응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상담심리와 심리학개론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열등감 반응에 대해 설명 한 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문항은 모두 874개로 긍정적 반응이 347문항, 부정적 반응이 527문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들이 수집된 문항 중 중복된 문항을 간추려 정리하였다. 간추려 정리한 문항에 대해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에게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후 3점 이상을 받은 94개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고 문항을 정리하였다. 평정자간의 상관은 .75~.92로 나타났다. 두 번째,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요인과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문항분석은 상관이 3.0보다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7문항이 제거되었다. 57 문항에 대해 주축요인법의 Oblimin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미만으로 나타난 13문항을 제거하고 요인부하량이 비슷하여 중복된 요인으로 나타나는 8문항을 제거하였다. 최종 36문항에 대해 표본적합도 KMO(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살펴본 후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가 1.00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율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선정하고 주축요인법의 Oblimin 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요인 및 문항은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으로 각각 10, 8, 10, 8문항씩 36문항이다. 세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 안정성을 살펴보고 내적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충청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열등감 검사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살펴 보았다. 다섯 번째,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을 통해 공준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여섯 번째,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의 열등감 반응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요인구조의 안정성

열등감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 타인비교-부정적 반

표 1. 열등감 반응 척도의 요인구조(N = 334)

열등감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분산
타인비교 - 긍정적 반응	나는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지(예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얼굴로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153	-.414	.124	-.101	.443
	나는 체형(키, 몸무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과 사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45	-.567	.214	-.118	.761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신체적 결함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는 않다.	.116	-.475	.121	-.269	.545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13	-.497	.141	-.108	.530
	나는 동성의 또래에 비해 성적인 매력이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155	-.475	.197	-.189	.743
	나는 이성교제 대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 친구는 나 자체를 인정해 줄 것이다.	.127	-.465	.183	-.111	.400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사교성이 떨어지지만 모임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	.127	-.409	.184	-.147	.704
	나는 학과에서 동기들에 비해 학업능력이 부족하지만 동기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	.131	-.403	.208	-.127	.393
나는 또래에 비해 낙오되어 가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음을 믿는다.	.185	-.415	.192	-.113	.771	
나는 또래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8	-.407	.144	-.171	.307	
형제비교 - 긍정적 반응	어렸을 때 나는 얼굴이 형제(자매/남매)보다 잘생기지(예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얼굴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122	-.130	.269	-.453	.406
	어렸을 때 나는 체형(키, 몸무게)이 형제(자매/남매)보다 못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132	-.101	.223	-.754	.621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와 달리 신체적 결함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125	-.144	.171	-.501	.307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건강하지 못했지만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하는 놀이에 적극 참여했다.	.102	-.131	.142	-.456	.366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사교성이 떨어졌지만 사람들과 잘 지냈다.	.172	-.141	.181	-.503	.431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지만 가족들은 나를 인정해 주었다.	.131	-.136	.205	-.435	.438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지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135	-.122	.114	-.442	.471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	.166	-.151	.148	-.580	.485

표 1. 열등감 반응 척도의 요인구조(N = 334)

(계속)

열등감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 분산
타 인 비 교 - 부 정 적 반 응	나는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지(예쁘지) 않아서 인정을 덜 받는 것 같다.	.520	-.173	.202	-.235	.514
	나는 체형(키, 몸무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578	-.132	.249	-.013	.762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하다.	.426	-.102	.278	-.025	.468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못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하는 편이다.	.572	-.109	.207	-.157	.664
	나는 동성의 또래에 비해 성적인 매력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760	-.147	.166	-.132	.747
	나는 이성교제 대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성 친구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진다.	.664	-.134	.168	-.108	.802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사교성이 떨어져서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편이다.	.606	-.105	.135	-.128	.658
	나는 학과에서 동기들에 비해 학업능력이 부족해서 동기들은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824	-.184	.134	-.287	.722
나는 또래에 비해 낙오되어 가는 것 같아 어떠한 일도 해 낼 수 없을 것 같다.	.508	-.224	.101	-.176	.636	
나는 또래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할 것이다.	.745	-.160	.208	-.176	.741	
형 제 비 교 - 부 정 적 반 응	어렸을 때 나는 얼굴이 형제(자매/남매)보다 잘생기지(예쁘지) 않아서 인정을 덜 받았다.	.157	-.187	.511	-.122	.658
	어렸을 때 나는 체형(키, 몸무게)이 형제(자매/남매)보다 못해서 사람들과 만나기는 것을 피하곤 했다.	.161	-.129	.428	-.131	.383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와 달리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했다.	.184	-.182	.401	-.149	.559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해서 함께 놀기보다는 혼자 노는 것이 더 좋았다.	.125	-.156	.452	-.120	.348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사교성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249	-.192	.411	-.127	.688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서 가족들은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163	-.124	.479	-.160	.590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07	-.146	.463	-.110	.342
	어렸을 때 나는 형제(자매/남매)에 비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었다.	.231	-.314	.481	-.125	.501
교유가	7.428	5.169	4.336	3.860		
설명변량(%)	20.63	14.64	12.43	10.45		
누적변량(%)	20.63	35.27	47.70	58.15		

표 2. 열등감 반응 척도 요인 간 상관표

변인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345	-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254	-.239	-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226	-.235	.339	-

응,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 각각 10, 8, 10, 8문항씩 36문항을 선별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인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의 사각회전인 Oblimin회전방식을 실시했으며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9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유치의 값이 1.00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율 방법을 사용하였고 Scree Plot, 요인별 문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의 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이 각 요인별로 최종 선정되었다(이순목, 2003). 최종 선발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 간 상관표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네 요인에 대한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df = 588, N = 235) = 853.962, p < .001$, χ^2 값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χ^2 값은 사례수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다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

.962, CFI = .977로 기준치인 .90이상으로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RMSEA = .044(LO 90=.037, HI 90 = .050)로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Stevens, 1996). 열등감 반응 척도의 측정모형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0.37에서 0.6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내적 일관성

본 검사에서 신뢰도는 광주·전남 지역 및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살펴본 결과, 전체 내적 일치도 α 가 .930, .912,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911, .902,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 .893, .881,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925, .930,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 .851, .900 으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4주 간격 재검-재검사 신뢰도는 전체가 .924,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926, 형제(자매/남

매)비교-긍정적 반응 .903,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899,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 .951로 나타나 본 척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타당도

준거타당도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열등감 검사(김응만, 1995)를 외적 준거로 사용하였다. 김응만(1995)의 열등감 검사는 열등감 반응 자체를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열등감을 측정하는 검사이지만 현재 열등감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열등감 검사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 열등감 내용 및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즉 열등감 콤플렉스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일치한 부분들이 많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외적 준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등감 반응 척도와 열등감 검사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결과는 표 3이다.

표 3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등감 반응 척도 및 하위 요인 모두와 열등감 검

사 및 하위 요인 모두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및 형제비교-긍정적 반응은 열등감 및 그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및 형제비교-부정적 반응은 열등감 및 그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개발된 열등감 반응의 총합(평균값)과 열등감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열등감 반응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검사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공존타당도

열등감 반응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열등감과 관련된다고 시사되는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열등감 반응 및 하위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열등감 반응 및 그 하위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및 형제비교-긍정적 반응은 대학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상

표 3. 개발된 열등감 반응과 열등감과 상관

변인	신체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	가정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합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331***	-.346***	-.302***	-.305***	-.343***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212***	-.274***	-.397***	-.310***	-.254***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447***	.411***	.375***	.407***	.423***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340***	.201***	.383*	.312***	.238***
총합	.348***	.382***	.357***	.377***	.433***

주. *** $p < .001$

표 4. 열등감 반응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

변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일반적 적응	총합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476***	.502***	.452***	.362***	.443***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201**	.214**	.256***	.227***	.275***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468***	-.541***	-.413***	-.472***	-.523***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254***	-.280***	-.295***	-.269***	-.320***
총합	-.401**	-.448***	-.410***	-.458***	-.433***

주. ** $p < .01$, *** $p < .001$

관을 나타냈다.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및 형제비교-부정적 반응과 대학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 반응이 대학생활 적응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부적응과 관련해서 내담자가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또한 척도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인타당도

BDI 점수가 16점 이상을 나타낸 대학생 26명을 우울집단(신민섭, 박광배, 김중술, 1993)

으로, 우울증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BDI 점수가 10점 이하인 대학생 29명을 비교집단(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으로 분류하여 열등감 반응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집단과 우울집단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비교집단은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기준을 따랐다. 우울집단의 BDI 평균점수는 21.44점($SD = 2.17$), 비교집단의 BDI 평균점수는 2.65점($SD = 2.23$)이었다.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의 열등감 반응 및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점수, 변량분석 결과가 표 5이다.

표 5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열등감 반응 및 그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우울집단

표 5.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의 열등감 반응 및 하위요인의 평균, 변량분석 결과

변인	우울집단	비교집단	F(1, 54)
	(n = 26)	(n = 29)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1.85(.73)	2.98(.50)	62.531***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2.01(.38)	2.53(.45)	20.628***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3.24(.57)	2.12(.59)	61.287***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2.97(.54)	2.11(.67)	26.459***
총합	3.09(.88)	2.20(.76)	58.730***

주. *** $p < .001$

이 비교집단에 비해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F(1, 54) = 62.531, p < .001$, 형제비교-긍정적 반응, $F(1,54) = 20.628, p < .001$, 모두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F(1,54) = 61.287, p < .001$, 형제비교-부정적 반응, $F(1,54) = 26.459, p < .001$, 모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우울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타인비교나 형제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 대해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대학생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Adler이론을 바탕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열등감 반응 척도를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실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열등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열등감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열등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만을 다루었다. 그 결과 열등감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열등감이 낮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이 높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7%). 단지 열등감에 대한 반응의 차이 즉, 어떤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보인 반응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열등감만을 보지는 않더라.’, ‘적극 참여한다.’는 자기향상, 인식의 전환, 성취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인식하지만 유용한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Adler(1927)의 주장과 일치한다. 부정적인 반응에서 대해서는 ‘피한다.’ ‘인정을 덜 받은 것 같다.’, ‘무시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못해낼 것이다.’ 등의 회피, 낙담, 주저 등 후퇴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dler(1974 정수희 2002에서 재인용)가 제안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후퇴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Adler가 설명했던 공격성의 형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대학생이 되기까지 그들은 과도한 공격적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왔을 것이다. 또한 과장, 허풍, 자만 등의 부정적 반응을 자기향상, 성취, 보상 등의 긍정적 반응으로 표현하고 전환하는 방법을 학습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긍정적 및 부정적 반응에는 행동적인 특성보다 인지적인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해 인지의 변화가 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Adler의 이론과도 유사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발전하는데 더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열등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한 집단은 학과, 동아리, 종교단체, 가족, 동창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ilbert 등(2007)이 또래를 포함한 타인을, Dixon과 Strano(1989)가 형제(자매/남매)를 열등감의 주요한 비교 대상으로 본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었으며 이것을 다시 주요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과 형제(자매/남매)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의 네 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열등감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반응은 척도를 최대한 간명하면서도 타당하게 제작하기 위해 현재 열등감에 대해 대학생들이 많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형제(자매/남매)와의 비교는 주로 어렸을 때의 경험이 열등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Adler(1964)와 Dixon과 Strano(1989)의 이론에 따라 어린 시절 경험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열등감 반응에 대해 네 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문항분석,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비교-긍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 타인비교-부정적 반응,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 네 개의 하위요인 36문항이 최종 채택되었다.

둘째,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두 .85이상으로 나타나 검사도구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Dixon과 Strano(1989)가 개발한 상대적 열등감 지수(CFII)의 내적 일치도보다 높다. Dixon과 Strano(1989)가 개발한 상대적 열등감 지수(CFII)는 Adler이론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 형제(자매/남매)와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내적 일치도는 .75이상,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응만(1995)이 개발한 열등감 검사의 신뢰도가 .750에서 .874를 나타낸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발된 검사도구가 신뢰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열등감 검사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타인비교-긍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은 열등감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 타인비교-부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은 열등감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 또한 열등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생의 세 가지 주요한 과제인 일, 우정, 사랑을 성취하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열등감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Gilbert 등(2007)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개발된 척도가 열등감의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와 유의미한 정적·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열등감 반응을 측정하는데 적합함을 나타내는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생활적응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비교-긍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은 대학생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타인비교-부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은 대학생생활 적응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osak, Brown과 Boldt(1994)가

보상을 위한 노력, 성공의 예측요인인 자기평가 전략의 하나로 열등감을 제안한 것과 일치하며 Strano와 Petrocelli(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열등감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낮음을 보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개발된 척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부적상관을 보여 척도가 적응 및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점수가 높은 대학생을 우울집단으로, 우울점수가 낮은 대학생을 비교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우울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타인비교-긍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적 반응은 더 낮고 타인비교-부정적 반응과 형제(자매/남매)비교-부정적 반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illbert, McEwan, Bellew, Mills와 Gale(2009)이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열등감과 우울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열등감 반응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본 척도의 타당도는 물론 상담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Adler이론을 바탕으로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이 모두 유용함을 보여줌으로써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하나만 갖는 개념이 아니라는 Adler의 열등감에 대한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한국 대학

생에 적합한 검사 도구의 개발에 있다. 외국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열등감을 측정하는 검사도구가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가 없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검사 도구의 개발은 대학생 및 성인의 열등감을 측정하여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폭 넓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등감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감과 형제(자매/남매)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다시 세분함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열등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검사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신적 요인분석 및 준거타당도 검사에서 충청지역을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지만 좀 더 다양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등감 반응 검사의 준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적응과 부적응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준거가 제시된다면 상담자가 본 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열등감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반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인 상담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된다면 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사회 적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은정 (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응만 (1995). 열등감 해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열등감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수, 김홍규 (2006).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1), 37-69.
-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공역 (2001). *애들러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모상진 (2004). 청소년 열등감 극복을 위한 목회 상담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영환 (1987). *아들러 심리학 해설*. 부산: 선영사.
- 신민섭, 김중술, 박광배 (1993).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와 분할점과 분류 오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71-81.
- 이순목 (2003).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 학사.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임기홍 (2000). *고등학생의 열등감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수희 (2002). *대학생들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 (1970).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홍현숙 역 (1995). *자부심 키우기*. 서울: 새로운 사람들.
- Adler, A.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Greenwich, CT: Fowcett.
- Adler, A. (1964). *Problems of neurosis*. New York: Harper Torchbooks.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Dixon, P. N., & Strano, D. A. (1989). The measurement of inferiority: a review and directions for scale development.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45, 313-322.
- Gilbert, P., Broomhead, C., Irons, C., McEwan, K., Bellew, R., Mills, A., Gale, C., & Knibb, R. (2007). Development of a striving to avoid inferiority scal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633-648.
- Gilbert, P., McEwan, K., Bellew, R., Mills, A., & Gale, C. (2009). The dark side of competition: how competitive behaviour and striving to avoid inferiority are linked to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self-harm.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2, 123-136.
- Mehrabian, A. (2000). Beyond IQ: broad-based measurement of individual success potential or "emotional intelligence". *Genetic, Social, and*

- General Psychology*, 50, 133-239.
- Mosak, H. H., Brown, P., R., & Boldt, R. M. (1994). Various purpose of suffering.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0, 142-148.
- Rattner, J. (1963). *Individual psychology*. Munchen: Base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trano, A. D., & Dixon, N. P. (1990). The comparative feeling of inferiority Index.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46, 29-42.
- Strano, A. D., & Petrocelli, V. J. (2005).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role of inferiority feeling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1(1), 80-89.
- Terman, L. M., & Oden, M. H. (1959). *Genetic studies of genius*.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10. 0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4. 27

게재결정일 : 2010. 05. 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Responses to Inferiority Feelings (IRIF)

Min Jeo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IRIF for college students. The inventory was based on the Adlerian theory and consisted of 36 items.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four-factor structure; comparison of self with others-positive or negative responses, and comparison of self with siblings-positive or negative responses. The IRFI yielded high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 and test-retest reliability. Criteria validity was supported by a high correlation value between IRFI and Inferiority Feelings Inventory. Concurrent validity was also supported by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IRFI and Adjustment Inventory.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values of IRFI scores between depressed and compared students indicated construct validity.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d that the new inventory measures reliably and properly positive or negative responses to inferiority feel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the Responses of Inferiority Feelings inventory, development, validation